

傳記資料에 나타난 書名을 중심으로 본 퇴계 학맥의 전개

이군선*

|| 차례 ||

1. 서론
 2. 퇴계 일문의 교재
 3. 퇴계 문인들이 학문의 요체로 삼은 서적
 4. 결론
- 참고문헌

【국문초록】

본고는 퇴계 문인들의 전기자료에 나오는 서명을 중심으로 퇴계 학맥 전개의 한 단면을 살펴본 것이다. 퇴계 문인의 전기자료를 살펴보면 퇴계가 문인들을 가르칠 적에 사용한 교재는 주로 『심경』, 『근사록』, 『주자서절요』 등의 책이었으며, 퇴계의 문인들이 학문의 요체로 생각했던 책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은 첫째, 퇴계가 문인들에게 교학하며 가장 중요시한 서적이 『심경』과 『근사록』이라는 것이다. 『심경』과 『근사록』을 공부하는 것이 당시 학문적 성향이기는 하지만 여타의 문하에서는 퇴계 일문에서처럼 집중적인 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퇴계의 학문성향이 心學(理學)을 위주로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퇴계의 문인들이 중시한 서명 역시 『심경』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사록』과 『주자서절요』 역시 많은 문인들이 애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자서절요』는 퇴계에 의해 정리되어 퇴계의 학문체계가 녹아 있는 것으로 퇴계의 문인들은 독실하게 공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퇴계의 학맥이 『심경』과 『주자서절요』를 중심으로 心學(理學) 위주로 전개되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전임연구원

각된다.

위에서 정리한 퇴계 문인의 전기 자료에 나오는 서명을 토대로 살펴본 퇴계 학맥은 어디까지나 전기자료에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향후 개별 문집을 통한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제어 퇴계학맥, 전기자료, 교학서, 심경, 주자서절요, 근사록, 학통, 학문의 요체, 학문성향

1. 서론

퇴계의 문인에 대하여 정리하다보니 傳記資料에 여러 종류의 서명이 등장하는데 주로 『심경』 『근사록』 『주자서절요』 등의 책이었다. 이외에도 여러 종의 서명이 보이지만 퇴계가 문인들을 가르칠 때 사용한 책과 퇴계 문인들이 학문의 요체로 생각했던 책들은 대체로 위에서 언급한 서적들이라 하겠다. 본고는 퇴계 문인의 전기 자료에 나오는 서명을 중심으로 퇴계 문인들을 분류해 보면 퇴계 학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하는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서명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 이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학문적인 부분에 관련된 책이어야 본고에서 다루는 서명에 들어오게 된다. 퇴계에게 수업한 문인 중 어떤 경우에는 『심경』을 학문의 중심으로 두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심경』과 『근사록』 『주자서절요』를 학문의 요체로 삼았다. 또한 퇴계에게 배운 교재도 『심경』 『근사록』 『주자서절요』 등이 그 주류를 이루는데 문인마다 각각 다르다. 즉, 한 스승 밑에서 수학하였음에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다.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하기에는 공통점이 크고 스승의 영향만을 따질 경우, 차이점이 매우 크다. 본고는 이러한 사실에 의문을 품고 퇴계 문인들의 傳記資料에서 서명이 나오는 경우를 일단 모두 모아 같은 서명대로 분

류해 보고자 한다. 퇴계의 문인이라고 해서 모두 도학 한 길로만 나갔던 것은 아니다. 각기 다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공통점을 갖기도 하는데 그 성향을 전기자료에 나오는 서명을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퇴계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이 축적되어 왔는데 위에서 제기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퇴계 문인에 대하여 접근해보는 것도 퇴계학의 면모를 파악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참고로 하는 책은 『퇴계학연구』15, 16, 17, 18이다. 이 책은 퇴계 문인의 전기자료를 모으고 번역한 것이다.

2. 퇴계 일문의 교재

퇴계문인의 전기자료에 나오는 서적에 대한 기록을 적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퇴계 문인들이 퇴계에게서 배웠다는 기록이 있는 서명을 정리해 본다. 여기에는 행장, 묘갈명 등을 위주로 하고 문인록에 나오는 단편적인 기록은 참고로 하기로 한다. 일단 『심경』 『근사록』 등의 순서로 정리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두 책의 서명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 황준량행장(풍기)

『심경』 『근사록』 같은 성리학 서적을 얻어 읽고 최후에는 『주자서』를 읽고는 깊이 감발함이 있었다. (及得心經近思錄等諸性理書而讀之 最後 又得朱子書而讀之 於是 深有所感發)

퇴계가 쓴 黃俊良(1517~1563) 행장의 일부이다. 황준량은 퇴계에게 『심경』 『근사록』 등의 책을 배웠지만 퇴계 보다 먼저 죽었다. 이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퇴계의 문인들이 가장 많이 배웠고 독실하게 공부한 『심경』 『근

사록』 『주자서절요』 등의 서명이 모두 등장한다는 것이다. 퇴계가 이 행장을 썼다는 점을 고려할 때, 퇴계가 문인들을 가르칠 때 주로 사용한 교재들이 바로 『심경』 『근사록』 『주자서절요』 등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자서절요』는 퇴계 자신이 정리한 것으로 퇴계의 학문사상이 들어 있다고 평가를 받는 책인데 이 책을 문인들의 교학서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계가 『주자서절요』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 배삼익가장(안동)

경신년에 퇴계에서 이 선생을 만나 보니 『심경』과 『시전』을 강의하는데 학문의 요체를 들을 수 있었다. (庚申拜李先生於退溪 講心經詩傳 得聞爲學之要)

배삼익(1534~1588)의 연보에 의하면 27살 때 퇴계선생을 배알하고 『심경』과 『시전』을 배운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뒤로도 항상 왕래하며 질정하니 퇴계선생이 칭찬하였다고 한다.¹⁾ 『심경』을 배웠다는 점에서는 다른 문인들과 동일하지만 『시전』을 배웠다는 점이 특이하다. 퇴계 일문에서는 주로 심학에 관련된 서적을 읽었다는 기록에 비해 배삼익 행장의 기록은 『시전』을 특기하고 있는 것이다. ‘공은 일찍이 문학으로 당시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지은 시문은 따뜻하고 완곡하였으며 전아하고 잘 다듬어져 있어 사실무근한 말은 하신 적이 없다. 비록 어찌다 흥에 기탁하여 지으신 것이 있으면 재빨리 없애 버리셨다. (公蚤以文學見推於時人 爲詩文 溫婉典裁 未嘗爲無實之語 雖或託興有作 而旋輒毀棄)’는 家狀의 기록처럼 배삼익은 문학적 경향이 농후했던 것으로 보인다.

1) 『퇴계학연구총서』7, 『臨淵齋先生文集』, 「年譜」. “三十九年庚申(先生二十七歲)春 往拜退溪李先生之門 受心經詩傳 得聞爲學之要 自是常往來就質 李先生深許其器局”

◦ 정곤수행장(성주)

을축년(1565)에 퇴계 이선생을 예안의 도산정사로 찾아가 뵙고 『심경』을 배웠다(乙丑 往謁退溪李先生滄于禮安陶山精舍 受心經)

◦ 정구행장(성주)

계해년(1563) 봄 퇴계선생의 문하에 올라 『심경』을 질문하고 정밀히 생각하고 힘써 행하였다(歲癸亥春 始登退溪李先生之門 叩質心經 精思力踐)

정곤수(1538~1602)와 정구(1543~1620) 형제는 퇴계와 남명 모두에게 사사받았다. 정곤수는 퇴계에게 수학한 뒤 서울에서 남명 조식을 사사하였고, 정구는 21살 되던 계해년에 퇴계에게 심경을 배우고 이후 남명과 대곡 성운을 배알하였다. 이들이 퇴계에게 『심경』을 배웠다고 한 것을 보면 퇴계 학문의 정수가 『심경』에 있는 것으로 인식한 듯하다.

◦ 이덕홍행장(예안)

공의 『심경석의』는 공이 선생에게서 글을 읽을 때 그 가르침을 자세히 적어 두었다가, 의심나는 점을 물어 바로잡은 것으로 본지를 잃지 않았다(其心經釋疑 則公受讀時詳錄其訓語 質於先生而證正 稱正不失本旨者也)

이덕홍(1541~1596)이 퇴계를 배알한 것은 25세 때이다. 그 해 8월 동문들과 퇴계선생을 모시고 『계몽』을 읽었으며 이듬해에 『심경』에 대하여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였다.²⁾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행장에서 언급한 『심경석의』인 것으로 보인다. 연보에 나와 있는 기록과 행장의 기록을 비교해 볼 때 『심경』만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퇴계와 퇴계의 문인들은 『심경』을 매개로 학맥을 형성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2) 『한국문집총간』51, 『艮齋集』, 「年譜」, “乙丑先生二十五歲 八月 與同門侍退溪先生 講啓蒙 丙寅先生二十六歲 十月 侍坐溪堂 質心經疑義”

◦ 조광익행장(창원)

겨우 열 살 남짓 되어 퇴계 이선생의 성리학에 대해 듣고 나아가 배알하고 『심경』을 배우기를 청하였다. 선생은 “배움은 등급을 뛰어넘을 수 없다. 우선 『소학』을 전수하겠다.”고 하니 공이 “『소학』은 이미 숙독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선생이 이에 책을 펴고 물으니 막히는 곳이 없었다. 이에 문하의 제현들이 모두 그 재주의 민첩함과 일찍 이론 것에 대하여 탄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纔十餘歲 聞退溪李先生性理之學 卽往謁之請學心經 先生曰學不可躐等 將授小學 公曰此書已熟讀之矣 先生乃開卷設問 則無不通徹 於是門下諸賢 咸服其才敏夙成)

조광익(1537~1578) 연보에 의하면 조광익이 퇴계선생을 배알한 것은 13세 때로 되어있다. 조광익은 퇴계 선생에게 찾아가서 『심경』을 배우기를 청하였는데 위 행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답하였다고 한다.³⁾ 백현룡(1543~1622)의 행장에도 『대학』 『근사록』 『심경』 등의 책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다.⁴⁾

◦ 권우행장(안동)

19세에 퇴계선생 문하에서 유학하며 『계몽』을 배우고 학문하는 방법을 들었다. (蓋公於十九歲 時受易退陶門下 得聞其旨訣)

권우(1552~1590)는 퇴계에게 재종질되는 인물로 일찍이 문재를 이론 것으로 되어있다. 19세때 퇴계에게 『주역계몽』을 배웠으며 39세로 단명하였다. 월천 조목에게도 사사하였다고 한다.⁵⁾

3) 『퇴계학연구총서』7, 『聚遠堂先生文集』, 「年譜」. “先生十三歲 謁退陶李先生請學心經 先生曰學不可躐等 先授小學 叩其文義 無不通徹 先生大異之 門下諸賢 咸服其才敏.”

4) 『惺軒文集』, 「행장」. “往拜于陶山 問心學之要 自是歲 必贏糧往棲于隴雲精舍 及清涼山寺 講大學近思錄心經等書 先生大加稱許.”

5) 『퇴계학연구총서』10, 『松巢先生文集』, 「行狀」

연보에는 기록이 있는데 행장이나 기타 전기 자료에 서명이 등장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행장을 저술한 사람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행적을 보다 중요시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인물은 유운룡, 유성룡, 조호익, 금난수이다.

◦ 유운룡(안동)

선생 24세 9월 문충공과 퇴계선생을 배알하고 계상의 서재에서 여러 달을 머물며 『근사록』 등의 책을 읽었다. 선생이 아뢰길 “지금 『대학』을 배우고 싶지만 먼저 『근사록』을 배우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퇴계선생이 “좋다.”고 하시고는 마침내 「태극도설」을 가르쳐주셨다. 가르치기 전에 조용히 말씀하시길 “진실로 여기에서 득력한다면 무슨 글인들 읽지 못하겠는가?” 라고 하셨다. 선생이 또 아뢰길 “『계몽』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자기에게 절실한 곳에 힘써 공부하지 않고 현묘한 상수를 미루어 가는 것은 등급을 뛰어 넘는 것이다”(先生二十四歲 九月 與文忠公謁退溪先生 留溪上書齋數月 受近思錄等書 先生稟曰 今欲受大學 請先受近思錄 退溪先生曰 最好 遂授太極圖說 臨教從容曰 苟於此書得力 則何書不可讀乎 先生又稟曰 如啓蒙一書 亦可受讀否 答曰 不於切已處用功 而先推玄妙象數 終是躐等)

◦ 유성룡(안동)

임술년 선생 21세 9월 도산에서 퇴도 이선생을 배알하고 여러 달을 머물며 『근사록』 등의 책을 배웠다. 이로부터 성리학에 잠심하여 의리를 강명하고 실천함에 반드시 성현을 귀의처로 삼으니 이선생이 매우 칭찬하였다.(壬戌 先生二十一歲 九月 謁退陶李先生于陶山 留數月 受近思錄等書 自是 潛心性理之學 講明踐履 必以聖賢爲指歸 李先生大加稱賞)

유운룡(1539~1601)과 유성룡(1542~1607)이 퇴계선생을 배알한 것은 각각 24세, 21세 때의 일이다. 퇴계선생을 도산으로 찾아가 여러 달을 머물며 『근사록』 등의 책을 공부하였다. 다른 문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심경』을 공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운룡과 유성룡의 기록에는 『심경』에 관한

기록이 없다.

조호익(1545~1609) 역시 『주자어류』와 『근사록』에 대해 질문하였으
며⁶⁾ 금난수(1530~1604)도 퇴계 선생의 문하에 나아가 『심경』과 『주서절
요』를 질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⁷⁾ 조목(1524~1606)의 경우에도 43세
때 퇴계선생을 뵈고 『심경』에 대해 질문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행장의 기록에는 없지만 문인록에 퇴계에게 배운 서명이 등장하는 경우
도 있다. 정지운(1509~1561)의 경우에는 『계몽』과 『심경』을, 이합형의
경우엔 『심경』과 『주자서절요』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심경강록』이란 저술
을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김생명(1504~1577)은 『심경』과 『역학계몽』
을, 박사회(1508~1588)는 『심경』 『근사록』 『역학계몽』 등을 배웠다. 윤
근수(1537~1616) 역시 『심경』을 가지고 질문하였으며 조진(1543~1625)
은 『심경』과 『근사록』을 배웠다. 금은(1533~1594)은 『논어』 『심경』 『근
사록』 『역학계몽』 등의 책에 대하여 질정하기도 하였다. 성락(1542~1588)
은 『심경』 『근사록』 『주자서』를, 금의순(1543~1591)은 아우 제순(1545~
1610)과 함께 『대학』 『계몽』 『심경』 등을, 전찬(1546~1612)은 『심경』
과 『근사록』을, 윤홍중은 『심경』을, 이순도(1554~1584)는 조목 김부필
(1516~1577)과 『심경』을, 권희(1545~1602)는 『심경』과 『역학계몽』을
배웠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금보(1521~1584)는 43세 때 『심경』과 『근사
록』을 읽었고 『심근강의』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김수(1547~1625)의 경우
“『소학』과 『근사록』 『심경』 가운데 어느 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자

6) 『한국문집총간』55, 『芝山集』, 「年譜」. “乙丑先生二十一歲 同聚遠堂公 進謁陶山 按聚遠堂實錄 講質朱子語類近思錄等書.”

7) 『한국문집총간』38, 『月川集』, 「年譜」. “及得李先生爲之依歸 講學以踐成法 義理 以培其根 隨俗應學 師席之所不禁 而臨試之日 以爲業未盡 抱書入清涼山普賢庵 已見大意也 尊信小學書 嘗欲父子兄弟逐日行拜 如徐節孝古事 仰質於師門 心經 朱書 先生之所發端於初 而專心於晚暮者 受而誦讀爲終身家計.”

퇴계는 “『소학』은 체와 용이 고루 갖추어 있고 『근사록』은 의리가 정밀하여 모두 읽지 않을 수 없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이 공부하는데는 『심경』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라고 하여 『심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이양원(1526~1592)의 경우에는 소재 이중호의 문하에서 『소학』을 공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홍인우(1515~1554)도 퇴계를 만나기 전 『심경』과 『근사록』을 읽었다고 하는데 이는 퇴계 문하에서 수학한 것과 별 관계가 없기에 생략하였다.

이상으로 퇴계 문인의 전기자료 중 교학과 관련된 서명의 기록을 정리해 보았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서명	인	물	계
심경	정지운, 이합형, 황준량, 김생명, 이숙량, 금난수, 박사희, 배삼익, 윤근수, 정근수, 이순도, 조목, 김부필, 권희, 이덕홍, 정구, 조광익, 조진, 금은, 백현룡, 금의순, 금제순, 전찬, 윤홍중, 성락, 금보		26명
근사록	황준량, 박사희, 유은홍, 유성룡, 조호익, 조진, 금은, 백현룡, 전찬, 성락, 금보		11명
주자서절요	이합형, 황준량, 성락, 금난수		4명
계몽	정지운, 김생명, 박사희, 금은, 권우, 금의순, 금제순, 권희, 이덕홍		9명

모두 30명의 전기자료에 퇴계에게서 배운 서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심경』과 관련된 인물이 26명으로 압도적이고, 『근사록』이 11명으로 뒤를 따른다. 이를 통해 본다면 퇴계가 문인들을 가르침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심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퇴계의 학문관에 지식이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퇴계는 문인들을 가르침에 있어 『심경』을 가장 주요한 과목으로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율곡의 학통을 이은 김장생은 후학들을 『소학』 『가례』 『심경』 『근사록』 『사서』 『오경』 등의 순서로 가르쳤는데⁸⁾ 이 점에서 보면 퇴계의 교학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퇴계

일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심경』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석은 퇴계의 학통제자를 분류한 적이 있는데⁹⁾ 안동의 유운룡·유성룡을 제외하면 퇴계의 학통제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심경』이다. 퇴계가 교학할 때 『심경』을 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후 퇴계 문인들의 학문적인 성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퇴계의 문인들이 『주사서절요』를 배웠다는 기록 역시 퇴계가 문인들의 교학서로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3. 퇴계 문인들이 학문의 요체로 삼은 서적

다음은 퇴계 문인들이 자신의 삶의 지표나 공부하는 요체로 삼은 서적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역시 많이 나오는 서명 순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박순행장(서울)

문장을 논함에는 반고 사마천 한유 유종원 이백 두보를 근본으로 여겼고 도학을 논함에서는 『소학』 『심경』 『근사록』을 계제로 삼았다. (論文章 則首以班馬韓柳李杜爲本 論道學 則又以小學 心經近思錄爲階梯)

박순(1523~1589)은 퇴계 문인록에는 먼저 서경덕에게 배우고 중년에 퇴계에게 사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행장에는 서경덕에게 수업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퇴계선생을 사사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사암에 대한 연구는 문학방면 특히 시 부분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퇴계학과는 그다지 많은 연관성을 갖지는 않는다.¹⁰⁾ 박순의 행장에

8) 『한국문집총간』 57, 『沙溪遺稿』, 「행장」

9) 김종석, 「도산급문제현록과 학통제자」(『퇴계학의 이해』, 일송미디어, 2001)

10) 김종석은 학통제자의 범주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박순을 제외하였다.

나오는 기록은 퇴계와의 연관 선상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니라, 이 당시 학문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나올 것이다. 율곡의 문인인 사계 김장생의 경우를 보아도 『소학』을 학문하는 대본으로 삼았으며 『중용』 『대학』 『심경』 『근사록』 등의 서적을 중시했다는 기록¹¹⁾이 보이는데 이 역시 당시 학풍의 한 경향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 조목행장(예안)

늘 배우는 이들에게 “『소학』은 여러 경전의 내용을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책이니 만약 이 책의 내용만 철저히 통달한다면 성인이 되는 근본 기초가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神道碑銘 常謂學者曰 小學乃諸經之機括 苟能通透是書 作聖根基在此矣)

일찍이 퇴계선생께서 초록하신 『주자서절요』 가운데서 후학들에게 더욱 절실한 내용을 뽑아서 한 책을 만들어 놓고 늘 살펴보면서 행동의 지침서로 삼았다. 『심경』을 더욱 좋아하여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체득하였다.(神道碑銘 嘗就李先生所抄錄朱子書節要中 又抄其尤切於後學者爲一冊 以備觀省焉 尤愛心經 口誦而心體之)

조목(1524~1606)은 15세 때 퇴계에게 수업하기 시작하여 39세 때부터 퇴계에게 『심경』에 대해 질의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조목은 퇴계의 의발을 전수받은 인물이다. 행장에 나오는 『주자서절요』는 퇴계에 의해 정리된 것이고, 『심경』은 퇴계가 문인들을 가르칠 적에 매우 중시하였던 서적이다. 특히 『심경』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퇴계의 학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퇴계의 뒤를 이은 조목에게 『주자서절요』와 『심경』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예안의 학풍은 談經說學하며 踐履篤實하다는 爲己之學 위주여서 難進易退하며 君主보다는 鄉村단위의 士林에 의한 교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11) 『한국문집총간』 57, 『사계유고』, 「행장」

한다.¹²⁾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목이 『소학』을 중시한 점 또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정곤수행장(성주)

이선생에게 『심경』을 배우면서 성현이 마음을 다스리던 큰 방책을 얻어 들었는데 기질을 변화시키는 법을 여쭙자 선생이 “『논어』 가운데 ‘주충신’ 세 글자가 가장 절실하며 그 장의 아래위 말씀들이 모두 배우는 사람이 마땅히 힘을 써야 할 곳들이다.”라고 하셨다. (從李先生受心經 得聞聖賢治心大方 請問氣質變化之法 先生教曰 如論語中主忠信三字 最爲切已 而其章內上下之語 皆學者所當用力處也)

◦ 정구행장(성주)

선생은 생각하기를 “이 학문의 진결이 진서산의 『심경』 한 권에 모여 있는데 그 주해를 보면 취사선택에 분명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자와 주자 등 여러 선생의 말씀 중에 본의를 발명함이 있는 것을 모아 추가로 넣되 옛날 주석을 줄인 것이 많으며, 또 부록을 붙인 다음 이 책을 이름하여 『심경발휘』라 하였다. 이것을 정사하여 책을 나눈 다음, 원근의 동정에 일찍이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고 조석으로 항상 보았으니, 이는 마음으로 체득하고 정신으로 안 것이 아니겠는가? (先生以爲此學眞訣 萃在眞西山心經一部 見其註解取舍有所未瑩 乃自裒取程朱及諸先生之語有以發明本義者 增入之 而多所損節於舊註 又足之以附錄 而目其書曰 心經發揮 精寫分卷 凡其遠近動靜 未嘗釋手 而朝夕常目焉 此非其心體神會之地乎)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곤수 정구 형제가 퇴계에게 배운 교재는 『심경』이었다. 또한 가장 중요시했던 책도 『심경』이라는 점에서 보면, 퇴계 학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책은 『심경』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12) 정만조, 「월천 조목과 예안지역의 퇴계학파」(『한국의 철학』28,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0) p.27.

◦ 홍가신행장(아산)

이십 오륙세부터 문득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고 『근사록』 『심경』 『주자서절요』 등의 책을 깊이 탐구하여, 분명하게 분변하고 상세하게 풀이하며,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에서 증험하니 깊이 얻은 바가 있게 되었다. 만년에는 『주역』을 읽었는데 기갈을 잊어버릴 정도에 이르렀다.(自二十五六歲 便有志於聖賢之學 潛玩近思錄心經朱子節要諸書 明辨而詳說之 體於身而驗於心 深有所得焉 晚讀周易 至忘飢渴)

홍가신(1541~1615)은 호서지방의 인물이다. 퇴계 선생을 만나기 전에 문장으로 자부하였다고 한다. 퇴계 선생을 서울에서 찾아뵈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근사록』 『심경』 『주자서절요』 등의 책을 읽었다. 홍가신이 가장 좋아했던 서적은 『주자서절요』였다고 그의 행장은 기록하고 있다.¹³⁾

◦ 백현룡행장(영해)

서적에 있어서는 경사자집으로부터 당송제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꿰뚫어 통하지 않음이 없어서 와서 묻는 사람이 있으면 증설이 분명하여 막히는 바가 없었다 『사서』 『심경』 『근사록』 및 퇴계선생의 『사칠변』 『성학십도』 등의 글을 순환 송독하여 비록 걷거나 잠자는 곳이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하였다.(於書自經史子集 下至唐宋諸家 無不淹貫該洽 有來叩者 證說了然無所滯礙 如四書心經近思錄 及退陶四七辨聖學十圖等書 循環誦讀 雖行步寢處 必暗記默會焉)

백현룡은 김언기가 향교에서 교육을 주관할 적에 김언기를 따라 공부하였고, 그 뒤 퇴계 선생을 배알하고 앞의 퇴계가 문인들에 가르친 서적을 살펴볼 때 언급하였던 서적을 공부하였다. 퇴계 선생은 敬齋箴을 써주었는데 항상 이를 보면서 공경하고 반성하는 자료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비교적 일

13) 『한국문집총간』 51, 『晩全集』, 『행장』, 『平生酷愛朱書節要 嘗讀誦心經近思錄 循環玩讀』

찍부터 퇴계 문하에서 공부하여 많은 성취가 있었다고 한다.¹⁴⁾

이 외에도 권춘란의 경우 “『심경』 『근사록』을 책상 위에 두고 공이 퇴청한 후 여가에 경계하고 반성하며 그 책을 펼쳐 보았다.”¹⁵⁾고 하였고 금응협은 “『심경』과 『근사록』 등의 책에 더욱 마음을 기울였다.”¹⁶⁾고 한 것으로 보아 권춘란과 금응협은 『심경』 『근사록』에 공부를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자서절요』를 중시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자서절요』를 중시하였다고 해서 다른 책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한 인물에도 여러 가지 서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서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금보행장(예안)

매일 『주자서』를 읽어 사서를 도와주는 공부로 삼고 강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每日讀朱子書爲四書夾助之工 講論不怠慢)

◦ 박광전행장(보성)

퇴계선생의 훈계와 깨우침을 마음에 지니면서 『주자서절요』를 깊이 연구하여 노경이 이르기까지 게을리 하지 않았다. (丙寅冬 °始執贄于退溪先生之門 °退溪一見 °許以相知 °時退溪方抄朱子書節要 °謂先生曰 °立脚根基 °專在朱門 °許令受業 °業既卒 °先生以定省久曠辭歸 °臨別 °退溪以節要一秩贐之)

금보(1521~1584)가 퇴계선생에게 나아가 수업하기 시작한 것은 금보의 나이 23세 때 일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퇴계선생에게 수업하여 『주자서절요』를 본격적으로 읽은 것은 38세 때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금보는 스승인 퇴계가 정리한 『주자서절요』를 독실하게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광전

14) 『惺軒文集』, 「행장」

15) 『퇴계학자료총서』8, 『晦谷先生文集』, 「행장」. “置心經近思錄於几案上 公退之暇 警省而披閱焉.”

16) 『퇴계학자료총서』6, 『日休勉進聯稿』, 「행장」. “尤用力於心經近思錄等書.”

(1526~1597)의 경우는 좀 특이하다. 박광전은 보성 사람으로 퇴계 문인으로는 드문 호남사람이다. 박광전에 대한 연구는 『퇴계학과 한국문화』 32호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박광전은 41세 되던 겨울에 퇴계 선생에게 나아가 문인의 예를 행하였고, 수업이 끝나고 귀향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퇴계 선생이 『주자서절요』 1질을 주자 퇴계의 뜻을 공경하여 『주자서절요』에 잠심 지속적으로 연구하였다.

◦ 김성일행장(안동)

책은 읽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이선생의 『주자서절요』를 가장 좋아했으나, 몸소 체득하고 가슴에 새겨서 자신의 표준으로 삼았다. 마음을 가라앉혀서 깊은 뜻을 연구함에 침식을 잊기도 하였고, 닭이 울면 일어나서 반드시 한 두 통의 편지를 뽑아 읽은 연후에 바야흐로 등을 밝히고 세수와 빗질을 하였다. 종일도록 단정히 앉아서 강독하는 즈음에는 엄숙히 하늘을 대하는 듯하였고, 정밀히 생각하고 명확히 분별하여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 『근사록』 『심경부주』와 같은 책을 애상하여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제생들 중에 학업을 청하는 자가 있으면 분석하여 밝게 깨우침에 간절히 마음을 쏟아서 반드시 그 양단을 모두 극진하게 하였다(於書無所不讀 而最愛李先生節要朱子書 體認服膺 以爲持身標的 潛心玩味 至忘寢食 鷄鳴而起 必抽誦一二牘 然後方始明燈盞檯 終日端坐 講讀之際 竦然如對 精思明辨 不得有所放過 如近思錄心經附註 皆所愛賞不釋也 諸生有請業者 剖析開曉 傾倒切至 必竭其兩端焉)

김성일(1538~1593)은 19세 때 퇴계 선생에게 나아가 수학하기 시작하여 21세 때에는 『시전』을 읽었고, 『역학계몽』을 배웠고 24세 때에는 『대학』과 『태극도설』 등을 읽고 『심경』과 『근사록』 등의 책을 배웠다.¹⁷⁾ 또한 25세 때에는 『주자서절요』를 배웠다. 이렇게 보면 김성일은 퇴계 문하에서

17) 『한국문집총간』 48, 『鶴峯集』, 「연보」 “先生二十四歲(補)十一月 謁退溪先生 以先生甲日也 仍留受業 讀大學太極圖說等書 又教以心經近思錄等書 導以聖賢之學.”

퇴계가 강하였던 모든 서적을 다 배운 셈이 된다. 연보의 기록에 비해 행장에서 『심경』 『근사록』 『주자서절요』만을 언급한 것을 보면 역시 퇴계 학맥의 주류는 『심경』 『근사록』 『주자서절요』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오수영(1521~1606)의 경우 『주자서』를 매우 좋아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오운(1540~1617)의 행장에도 “『주역』과 『주자대전』을 더욱 좋아하여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¹⁸⁾ 김복일(1541~1591)의 경우도 “『주서절요』 『대학연의』 『심경』 『근사록』 등과 같은 책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 공부하기를 오래하니 조예가 더욱 깊어졌다.”는 언급이 있다.¹⁹⁾

◦ 배신행장(현풍)

생도를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소학』을 먼저 하여 그 음식을 분변하고 구두를 바르게 하며 넉넉하게 익히고 깊음을 찾아서 스스로 얻게 하고 차례에 따라 점차로 나아가게 하며 차례를 뛰어 넘지 못하게 하였다.(教授生徒 必以小學爲先 辨其音釋 正其句讀 優遊探蹟 使自得之 循序漸進 不許躐等)

◦ 이광우행장

학문은 『소학』에 근본을 두고 경전으로 범위를 넓혔다.(其學也 本之以小學 而博之以經傳)

이 둘의 공통점은 퇴계와 남명 모두에게 사사하였다는 것이다. 이 둘이 중시한 서명은 『소학』이다. 퇴계 문하 역시 『소학』을 중시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심경』과 『근사록』이 주된 교재였다. 따라서 이들이 『소학』을 중시한 것은 개인적인 취향 내지는 남명의 영향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는 추후 더욱 정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퇴계와 남명의 학문

18) 『퇴계학자료총서』13, 『竹牖集』, 「행장」, “尤喜讀周易朱子大全等書 手不釋卷.”

19) 『퇴계학자료총서』3, 『南嶽先生逸稿』, 「행장」, “如朱書節要大學衍義心經近思錄等書 手不釋卷 用工積久 所造益深.”

경향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추론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광우의 경우 그의 행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퇴계와의 친연성보다는 남명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명이 죽었을 때 삼년 동안 심상을 입었다는 것도 그러하지만 교유한 문인 역시 남명의 제자들이 많았다.

또한 전경창의 경우 만년에 퇴계 선생의 풍도를 듣고 『심경』 『근사록』 『주자서절요』 등을 깊어지고 가야산에 들어가 1년 동안 공부하였다고도 하며, “『소학』이라는 책은 곧 옛 사람들이 사람의 됄됨이를 양성하던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어리석어 한사코 배우지 아니하니 매우 안타깝다고 하며 매우 배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책을 먼저 배우도록 권하였고, 또한 더불어 통독하여 근본이 세워진 연후에 다른 경전에 나아가게 하였는데 『역전』을 가장 나중에 배우게 하였다.”²⁰⁾는 행장의 기록을 보면 『소학』을 입학서로 중요시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 김윤행장(영천)

『중용』 『대학』 두 책을 더욱 좋아하여 작은 책자에 손수 본문을 필사하여 침잠 완역하여 그 뜻을 깊이 깨달아 관통했는데 『중용』의 ‘말은 행실을 돌아보고 행실은 말을 돌아본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고 돈독히 행한다’는 말과 『대학』의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 ‘그 홀로를 삼간다’는 등의 말에 이르러서는 자주 반복하여 생각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尤喜庸學二書 於小冊子 手寫大文 沈潛玩繹 融會貫通 至其中言顛行行顛言 博學審問慎思明辨篤行 毋自欺慎其獨等處 未嘗不三復致意)

◦ 박수일행장(선산)

날마다 『대학』과 『중용』을 외워 진덕하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더욱 『주역』을 공부하기 좋아했다. (日誦大學中庸 以爲進德之基 尤好看易)

20) 『한국역대문집총서』:2290, 『溪東先生文集』, 「행장」, “且以爲小學一書 乃古人所以做人底樣子 而今人嚮死不學 殊可惜也 每勸學者 必先是書 且與通讀 俾立根本然後 次及諸經 終以易傳

김용과 박수일 이 둘은 퇴계 문인들이 존신하고 학문의 요체로 삼았던 서적이 『심경』 『근사록』 『주자서절요』 등이었던 것과는 달리 『중용』과 『대학』을 학문의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학문성향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 지에 대하여 좀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서명	인물	계
심경	박순, 조목, 금응협, 김성일, 정근수, 권춘란, 홍가신, 김복일, 정구, 백현룡, 전경창,	11명
근사록	박순, 금응협, 김성일, 권춘란, 홍가신, 김복일, 백현룡, 전경창	8명
주자서절요	김보, 오수영, 조목, 박광천, 김성일, 오운, 홍가신, 김복일	8명
소학	박순, 배신, 조목, 이광우, 전경창	5명
주역	오운, 홍가신, 박수일	3명
사서	김복일, 김용, 백현룡, 박수일	4명

도표에서 보듯 퇴계 문인들 역시 『심경』을 가장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시대적인 학문 경향에서 연유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스승인 퇴계의 영향이 가장 컸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 특이한 점은 퇴계와 남명 모두에게 수학한 인물들이 중시했던 서적이다. 배신과 이광우는 퇴계와 남명 모두에게 수학하였는데 교학에 있어 가장 중요시한 책이 『소학』이다. 두 사람을 가지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료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남명은 『소학』에 보다 비중을 두었고 퇴계는 『심경』 『근사록』 『주자서절요』 등에 비중을 더 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퇴계의 문인들이 중시했던 서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퇴계에게 배운 내용보다 책의 종류가 증가했으며 『주자서』를 애독한 숫자도 늘었다. 또한

『주역』에 심취한 이도 4명이나 된다. 이러한 현상은 퇴계 문인 대에 이미 서로 다른 성향을 갖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퇴계의 학맥은 퇴계 당대에 『심경』을 통해 전수된다. 퇴계 사후 理學이라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양화 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4. 결론

이상으로 퇴계 문인들이 퇴계에게 배운 서적과 학문의 요체로 삼았던 서명을 중심으로 전기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퇴계가 문인들에게 교학하며 가장 중요시한 서적이 『심경』과 『근사록』이라는 것이다. 『심경』과 『근사록』을 공부하는 것이 당시 학문적 성향이기기는 하지만 여타의 문하에서는 퇴계 일문에서처럼 집중적인 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퇴계의 학문성향이 心學(理學)을 위주로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퇴계의 문인들이 중시한 서명 역시 『심경』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근사록』과 『주자서절요』 역시 많은 문인들이 애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자서절요』는 퇴계에 의해 정리되어 퇴계의 학문체계가 녹아 있는 것으로 퇴계의 문인들은 독실하게 공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퇴계의 학맥이 『심경』과 『주자서절요』를 중심으로 心學(理學) 위주로 전개되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에서 정리한 퇴계 문인의 전기 자료에 나오는 서명을 토대로 살펴본 퇴계 학맥은 어디까지나 전기자료에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향후 개별 문집을 통한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자료

- 『惺軒文集』
『퇴계학연구총서』7 『臨淵齋先生文集』
『퇴계학연구총서』7 『聚遠堂先生文集』
『퇴계학연구총서』10 『松巢先生文集』
『퇴계학자료총서』3 『南嶽先生逸稿』
『퇴계학자료총서』6 『日休勉進聯稿』
『퇴계학자료총서』8 『晦谷先生文集』
『퇴계학자료총서』13 『竹牖集』
『한국문집총간』38 『月川集』
『한국문집총간』48 『鶴峯集』
『한국문집총간』51 『良齋集』
『한국문집총간』51 『晚全集』
『한국문집총간』55 『芝山集』
『한국문집총간』57 『沙溪遺稿』
『한국역대문집총서』2290 『溪東先生文集』
『퇴계학연구』15,16,17,18(경상북도)

■ 저서 및 논문

- 김종석, 「도산급문제현록과 학통제자」(『퇴계학의 이해』, 일송미디어, 2001)
정만조, 「월천 조목과 예안지역의 퇴계학과」(『한국의 철학』28,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0)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oegye(退溪)'s scholastic lineage mainly watching the titles of books represented on biographic material

Lee, Goon-Seon

Through this thesis, a phase of the development of Toegye's scholastic lineage is looked around mainly the titles of books represented on biographic material of Toegye's disciples. Examining biographic material of Toegye's disciples, Toegye used textbooks named 『Simkyung(心經)』, 『Jujaseojeolyo(朱子書節要)』, 『Geunsarok(近思錄)』, etc when he taught his disciples, and they regarded the books as the secret of studies, too.

The contents of this thesis was argued, above all that Toegye considered 『Simkyung』, 『Geunsarok』 as the most important books while he communicated with his disciples. Studying those books was scholastic propensity of those days, but intensive course of lectures as Toegye's family was not accomplished under other instruction. That might show that his scholastic propensity made Simhak(心學)-it is very similar to psychology- the prime object.

Second, the title whose books Toegye's disciples thought to be cardinal was also mainly 『Simkyung』. Moreover, a lot of disciples were fond of reading 『Geunsarok』, 『Jujaseojeolyo』 as well. 『Jujaseojeolyo』 was especially organized by Toegye and his disciples learned it enthusiastically because it fused his scholastic system. This propensity was closely connected with the thing which his scholastic lineage was Simhak-centered development like 『Simkyung』 and 『Jujaseojeolyo』.

Toegye's scholastic lineage that I previously organized mainly the titles of books stood on just biographic material. Therefore, it needs minute researches through collections of individual works from now on.

Key Word

Toegye(退溪)'s scholastic lineage, biographic material, textbooks for teaching and learning, 『Simkyung(心經)』, 『Jujaseojeolyo(朱子書節要)』, 『Geunsarok(近思錄)』, scholastic mantle, the secret of studies, scholastic propensity